



‘추석 연휴를 잡아라.’
올해 추석 연휴가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륙을 노린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9월 이미 포문을 연 ‘내사랑 내곁에’와 ‘불꽃처럼 비처럼’은 흥행을 이어갈 기세며 10월 새로 개봉된 외화들도 관객집기에 나서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게이머

1#

가까운 미래, 전세계인들을 열광하게 만든 온라인 게임을 소재로 한 액션물이다. 영화 ‘어글리 트루스’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인 제라드 버틀러가 주연을 맡았다. ‘슬레이어즈’라는 온라인 FPS 게임은 실제 공간에서 사형수와 무기징역수들이 마치 게임 속 캐릭터처럼 마인드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게이머들의 플레이에 의해 전투를 벌이는 프로그램이다. 10대 소년 사이먼이 플레이하는 캐릭터인 ‘케이블’은 게임 속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며 ‘슬레이어즈’ 전세계인이 열광하는 최고의 인기 게임에 오르게 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써로게이트

#2

대리 로봇을 통해 인간이 100%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미래 사회에서 15년만에 발생한 살인사건을 쫓는 FBI 요원의 활약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인간의 삶을 지키는 써로게이트가 공격을 당해 그 사용자가 죽음을 당하는 전대미문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그리어는 피해자가 다름 아닌 써로게이트를 발명한 과학자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전 인류를 절멸의 상태로 빠뜨릴 치명적 무기가 존재함을 깨닫는다.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맡았으며 ‘터미네이터 3’의 조나단 모스토우가 메가폰을 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데스티네이션4

#3

자동차 레이싱 경주에서 시작된 죽음의 전조가 현실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미국에서 먼저 개봉해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시리즈 사상 최고 흥행을 달성하는 등 전세계를 열광시킨 화제작이다. 자동차 레이싱 대회 관중석에 앉아있던 닉은 갑자기 불길한 전조를 본다. 레이싱 카들이 연쇄 충돌을 일으켜 날아온 파편에 친구들이 죽고 무너진 건물에 자기를 덮치는 끔찍한 환이다. 악몽에서 깨어난 닉이 친구들을 끌고 경기장을 막 빠져 나온 찰나, 닉의 환상은 현실로 이어진다. <18세 이상 관람가>

추석연휴가 너무 짧다고?

연인끼리 가족끼리, 우린 ‘스크린 여행’ 떠난다

내사랑 내곁에

4#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남자와 그를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아내의 이야기를 그린 멜로영화다. 개봉 첫 주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재 관객 100만명을 넘어섰다. 배역을 위해 20kg을 뺀 연기와 배우 김명민과 ‘해운대’로 1천만 관객을 동원한 하지원이 투톱을 맡았으며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이 조연으로 출연한다. 황정민·전도연이 주연을 맡았던 ‘너는 내 운명’으로 한국 멜로영화 흥행기록을 세운 박진표 감독 작품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불꽃처럼 비처럼

5#

조선의 국모이자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명성황후 민자영과 그녀의 호위무사 무명과의 사랑을 그린 영화로 아실록의 동명 무명 소설을 원작이다. 시대극답게 화려한 세트와 의상 등 볼거리가 풍부하며 이선희가 주제곡을 불러 또 다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와니와 준하’, ‘분홍신’의 김용균 감독 작품이다. 주인공 명성황후 역은 단아한 매력이 돋보이는 수애가 맡았으며 그녀를 사랑하는 무사 무명 역으로는 연기와 배우 조승우가 출연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페임

#6

뉴욕예술학교를 배경으로 열정적인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원작으로 이미 1980년 일란 파커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페임’의 음악은 당시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며 많은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지난해 추석 시즌에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맘마미아’의 인기를 꿈꾸는 작품으로 미국 TV 프로그램 ‘유캔댄스’에서 톱 10까지 오른 케리먼 페인 등 600대 1의 오디션을 뚫고 선정된 배우들과 춤과 노래 솜씨가 일품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날아라 펄린

#7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 지원한 소규모 영화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인권’이라는 다소 딱딱한 소재를 유쾌하게 풀어낸 게 장점이다. 사교육 열풍 속에서 9살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부, 직장 내 상사들로부터 ‘왕따’당하는 신입사원, 황혼 이혼을 생각하는 노부부 등의 주제를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한 옴니버스 영화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임순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박인환·정혜선부터 문소리·박원상·손병호까지 연기와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전체관람가>





국제보청기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만 보였습니다. 3. 가격이 맘에 듭니다.

www.klif.com

잘 들으니까 더 행복해합니다.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2



부산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1



대구점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01



대전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촌로 101



광주점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로 101



울산점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1



경남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대로 101



충청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101